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ECB 채권매입 확대..라가르드 총재는 운이 좋았다
  - ◇ (POLL)-달러 약세 전망..그러나 안전자산 수요 급증 리스크
  - ◇ (칼럼)-한은 국고채 매입, '언제' 아닌 '어떻게' 중요..정례화 고민 필요한 이유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짐 부르그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7.1	2.6%	-4.2%	-3.5%	유로	1.1284	1.7%	0.7%	-2.3%
100엔 대비	1,096.7	4.1%	-3.1%	-4.4%	엔	109.58	-1.7%	-0.9%	0.9%
유로 대비	1,356.4	0.8%	-4.6%	-1.3%	위안	7.1130	0.4%	-2.1%	-1.3%
위안 대비	169.70	1.6%	-2.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110.98	6.8%	-5.0%	22.3%
코스피	2,181.87	7.5%	-0.7%	7.7%	나스닥	9,814.08	3.4%	9.4%	35.2%
코스닥	749.31	5.0%	11.9%	-0.9%	S&P500	3,193.93	4.9%	-1.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13.47	7.8%	-7.1%	15.8%
국고채 3Y	0.894%	6.8bp	-46.6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89%	9.2bp	-29.1bp	-40.4bp	미국채 2Y	0.210%	4.6bp	-135.1bp	-93.7bp
국고채10Y	1.452%	7.8bp	-23.1bp	-26.5bp	미국채 10Y	0.894%	24.1bp	-101.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9.55	11.4%	-35.2%	34.5%	한국 5Y	21.6bp	-4.6bp	0.6bp	-17.0bp
금(현물)	1,685.23	-2.4%	11.1%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220.39	2.6%	-10.7%	4.8%	중국 5Y	44.2bp	-9.6bp	13.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6월 8일(월)>

- 금감원,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금감원,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 비율 현황(잠정)(12:00)

### <9일(화)>

- 기재부,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00: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발간(10:00)
- 한은, 중장기 발전전략 공표(12:00)

### <10일(수)>

- 기재부, 부총리 녹실회의(07:30)
- 통계청, 5월 고용동향(08:00)
- 한은, 4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5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기재부,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16:00)
- 기재부, OECD 경제전망(17:00)

### <11일(목)>

- 금감원, 1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실적(06:00)
- 기재부, 중앙대책본부 회의(08:00)
- 금감원,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12:00)
- 한은,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2:00)
-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14:00)

### <12일(금)>

- 한은, 5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이주열 총재 창립 제 70주년 기념사(10:00)
- 기재부, 최근경제동향(10: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6월 8일(월)>

- 일본, 1분기 GDP 수정치(08:50)
- 일본, 4월 경상수지(08:50)
- 일본, 5월 은행대출(08:50)
- 유로존, 6월 섉덱스 지수(17:30)
- 미국, 5월 고용추이(23:00)
- 호주 휴장

### <9일(화)>

- 유로존, 1분기 GDP 수정치(18:00)
- 미국, 5월 NFIB 기업낙관지수(19:00)
- 미국, 4월 도매재고 수정치(23:00)
- 미국, 4월 도매판매(23:00)
-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10일)

### <10일(수)>

- 일본, 5월 기업상품 가격지수(08:50)
- 일본, 4월 기계류 주문(08:50)
- 중국, 5월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21:30)
- 중국, 5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17일)
- 중국, 5월 위안화 신규대출(~17일)

### <1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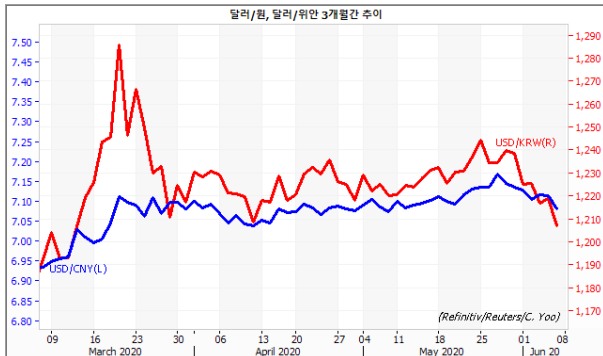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03:00)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설(03:30)
- 미국, 5월 연방예산(03:00)
- 일본, 2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08:5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21:30)

### <12일(금)>

- 미국, 연방준비제도 가계재무건전성지표(01:00)
- 일본, 4월 산업생산(13:30)
- 유로존, 4월 산업생산(18:00)
- 미국, 5월 수입·수출 물가(21:30)
-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23:00)
- 중국, 5월 외국인직접투자(~19일)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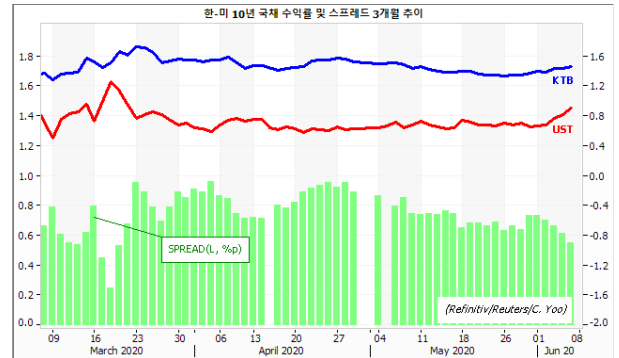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전방위적인 글로벌 위험 선호 현상에 힘입어 단기 바닥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90-1220 원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진정 국면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은 경제 지표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상승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 미-중 갈등이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양국이 참여한 신경전 이상의 대응을 자제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위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 코로나 19 사태가 변곡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쏟아진 정책 영향에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국내외 위험자산의 랠리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 위안화 절하 리스크에 잠시 약세 변동성을 키웠던 원화는 이제 추세 전환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그간 주요 지지선이 모두 저항선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단기 바닥 찾기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 국내외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최근 커지긴 했지만 그간 일관되게 국내 증시를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달러/원은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 오는 11일 새벽(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연준의 추가적인 정책 처방은 기대되지 않지만 연준 점도표를 비롯한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은 주목된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시장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과 불안한 글로벌 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대응이 관건이다.
- 주가가 요동치면서 채권금리가 꿈틀대고 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기준물인 10년물 수익률은 10.5bp 상승한 0.9252%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0일 이후 처음 0.9% 위로 상승한 것이다.
-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 국채 투자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은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 우려에 더해 최근의 위험자산 강세 흐름이 커브 스티프닝을 정당화하고 있다.
- 연준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드선으로 대응해 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장기국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며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금리 상한제(yield cap)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과 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양적완화 없이 해보려던 한은의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포지션 정리와 맞물리며 시장금리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여지가 있는 장세가 됐기 때문이다. 시장참가자들 역시 한은의 선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칼럼)-ECB 채권매입 확대..라가르드 총재는 운이 좋았다**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위기 속에서 성격이 드러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성격은 빛을 발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4일 채권매입 규모를 더 확대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유로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라가르드 총재가 전임자인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보다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라가르드 총재는 드라기 전 총재보다 운이 좋기도 하다.

ECB는 판데믹 긴급 채권매입 프로그램(PEPP)을 발표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규모를 6000억유로 늘린 1조 3500억유로까지 확대했고,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유로존 경제가 8.7% 수축할 것이라는 ECB의 전망이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결정권자들로부터 빠르게, 더 많이 채권매입 확대 지원을 얻어낸 공로는 인정받을 만하다. 또한 그는 지난 5월 분데스방크가 ECB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제동에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시장은 그의 결정에 반응했고, 유로존의 채권 수익률, 특히 이탈리아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다.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보다 유리한 재정 상황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드라기 전 총재 임기 동안에는 긴축이 유로존 정부들의 표어였고, ECB 혼자 경기 활성화 일을 맡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지난 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과 업종들을 돕기 위해 7500억유로 규모의 공동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몇몇 국가들은 이에 반대했고, 이는 이 프로그램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실을 맺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이미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쓰고 있다. 독일은 3일 1300억유로 규모의 새로운 재정 경기부양책에 동의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만의 회복 계획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각국 재무장관들이 방해하기 보다 돕는 상황에서 라가르드 총재의 성장 회복 노력은 더욱 효과를 볼 것이다.

**(POLL)-달러 약세 전망..그러나 안전자산 수요 급증 리스크**

벵갈루루 (로이터) - 글로벌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면서 달러의 매력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향후 6개월 안에 안전자산 베어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다.

그 동안 달러는 주요 및 신흥시장 통화 대비 약세를 보여왔다. 달러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이 금융시장을 덮쳤던 3월 고점에서 5% 가량 내려왔다.

세계 증시는 지난 3일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느린 경기 회복 전망, 미-중 갈등, 미국 내 시위, 코로나 19 감염 증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이 투자 신뢰를 개선시킨 것이다.

그 동안은 위의 리스크 요인들이 달러 강세 비결이었다. 하지만 이달 1-3일 60여명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국채 및 기타 금융자산 매입을 하면서 달러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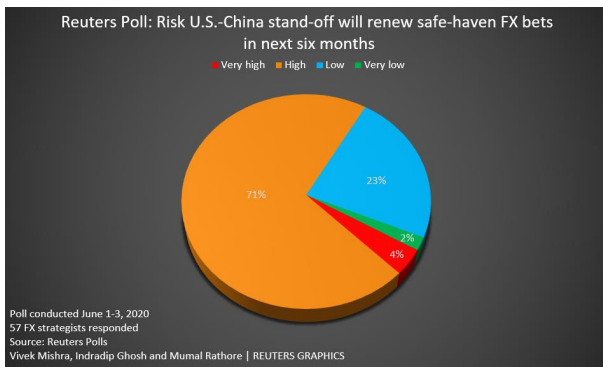
제인 폴리 라보뱅크 수석 환율 전략가는 “지정학 및 경제 관련 뉴스와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는 분명 괴리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은 중앙은행들의 막대한 유동성과 통화 부양책으로 상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가지 나쁜 리스크가 있다”며 “우리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투자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마치 모르핀 주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반을 살짝 웃도는 50명 중 29명의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6개월간 달러에 대한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어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애널리스트 57명 중 70% 이상이 미-중 갈등으로 향후 6개월 안에 안전 통화 베팅이 재개될 리스크가 "높다"고 말했다.

BBVA의 로버트 코보 가르시아 G10 수석 환율 전략가는 "미국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대선과 달러 고평가는 향후 6개월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로는 지난 3일,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12달러를 돌파한 뒤, 7일 연속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2013년 12월 이후 최장 기간이다.

유로 강세는 달러의 전반적 약세와 유로존 정책 입안자들이 채권 매입을 통해 유로존 취약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또한 유로는 PMI(구매관리자지수)에 기초한 5월 경제 활동 수축과 실업률 증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4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판데믹 관련 채권 매입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는 1, 3, 6개월 안에 1.10달러 안팎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 절상돼 1.14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 달 전 예상치인 1.08달러, 1.09달러, 1.10달러 그리고 1.13달러에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애널리스트들 대다수는 유로는 유럽연합 의회가 경제 회생기금을 통과하면 즉각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약세'를 보이거나 '더 많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칼럼)-한은 국고채 매입, '언제' 아닌 '어떻게' 중요.. 정례화 고민 필요한 이유**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직매입 이야기다. 기자들은 '오늘내일' 하면서 기사를 써대는데 이런 공개 초청에 익숙하지 않은 한은이 손사래를 치다 보니 금리만 들쭉날쭉하다.

▲한은 직매입, '언제'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

물론, 한은이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정되면서 올해 국고채 순증 발행은 10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44조 5000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은 9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34조 3000억원)의 세 배에 육박한다.

3차 추경이 국고채 발행에 반영되는 7월부터는 입찰이라는 현실이 채권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타이밍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분명하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 편성" 주문,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시 적극적 국고채 매입 의지" 강조, 3차 추경안 브리핑 당시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한은의 물량 소화 역할 기대" 발언 등은 어떤 의미에선 스포일러다.

한은이 현시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국고채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국고채 매입 정례화가 있다.



지금까지처럼 시장안정용 국고채 직매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우리가 들어간다"는 시그널을 주는 전략의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듯하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직매입의 기준이 되는 '변동성 확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리가 이를 연속 6-7bp 상승하면 커트라인을 통과한 것인가? 금리가 1주일 동안 2bp 씩 계속 오르는 건 어떻게 볼 것인가? 주가가 3% 급등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은도 시장도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다 보니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기에 기자들까지 경마식 보도를 이어가다 보니 베팅과 실망 매물이 반복되는 전개다.

문제는 이런 전개가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막상 한은이 국고채 직매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의 직매입이 끝나면 다시 불확실성 자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장 참가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 디스카운트 심리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고채 매입 정례화 강점..단순매입보다 비용 작을 수도

국고채 매입 정례화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시장 참가자는 일정 레인지에서 안정적으로 금리 전략을 펼 수 있게 된다.

한은 입장에서선 향후 어느 정도의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는지만 선언하고 매주 매입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해도 될 것이다. 이번 주 한은 매입량이 적다고 시장이 실망한다 해도 다음 주에 확실한 매입이 예정돼 있다면 급격한 쓸림은 제어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국고채매입 정례화 효과로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직매입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한은의 총매입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RP 매입 정례화의 빛과 그늘..한은, 정책효과에 집중해야

지난 3월 25일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자금을 전액 공급한다는 대책을 밝혔을 때도 이 부분을 감안했을 것이다.

한은이 매주 진행한 RP 91 일물 무제한 매입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안정될수록 축소됐다. 한은이 자금시장 안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먹힌 사례다.

하지만 RP 정례매입에도 그늘은 있다.

당시 RP 매입은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컸다. 글로벌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관이 마진 콜에 걸린 데다 마진 콜에 걸리지 않은 기관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자금시장이 경색됐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그동안 매입 약정을 맺고 돌렸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여어음(ABCP)을 되사주느라 여력이 없었다. 돈이 필요한 증권사들이 유동성 좋은 물건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자금·채권시장이 난리를 쳤고 결국 한은이 돈을 댄 것이다.

문제는 한은의 자금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의 행태였다. 사고를 쳤으니 어느 정도 위험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장이 안정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포지션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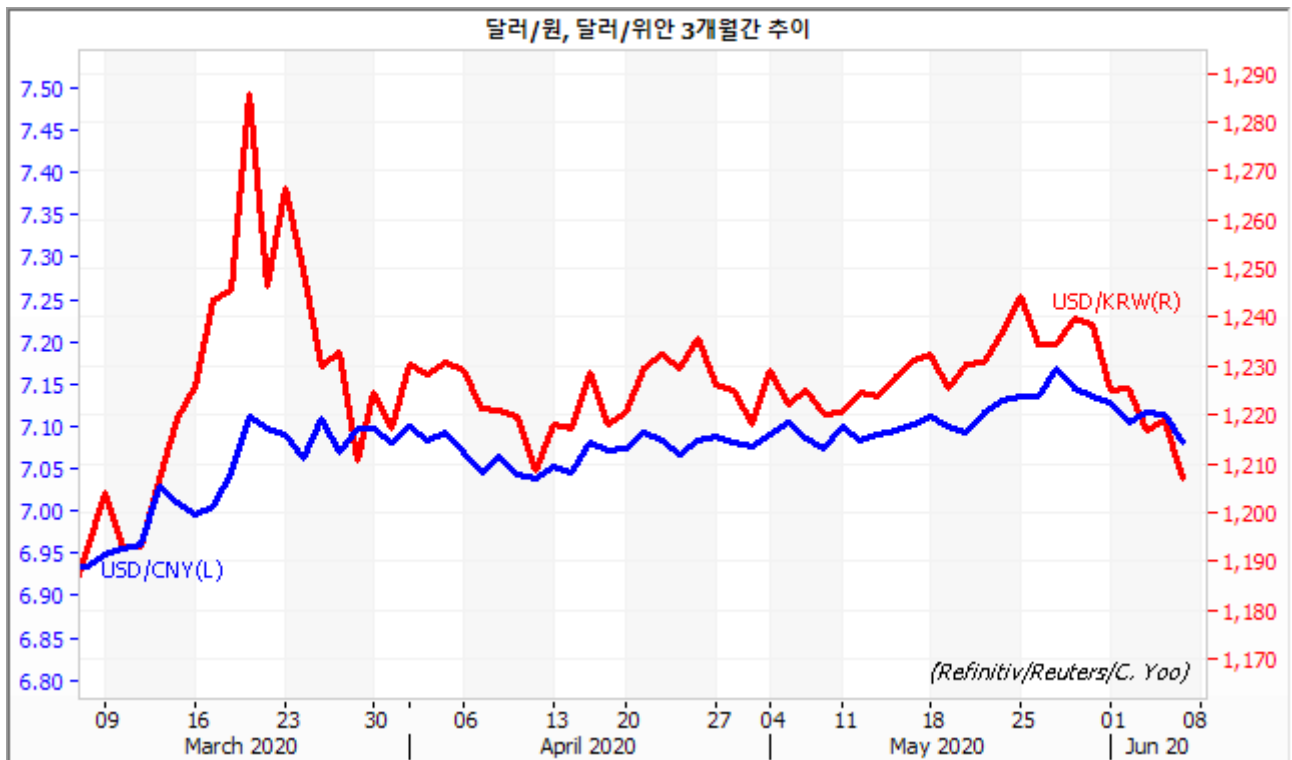
국고채 매입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한은이 시장 참가자의 돈줄 역할을 하는 듯한 현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이 고민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당장은 한은 총재의 발언대로 시장안정에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고 시장안정을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결정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안정이라는 대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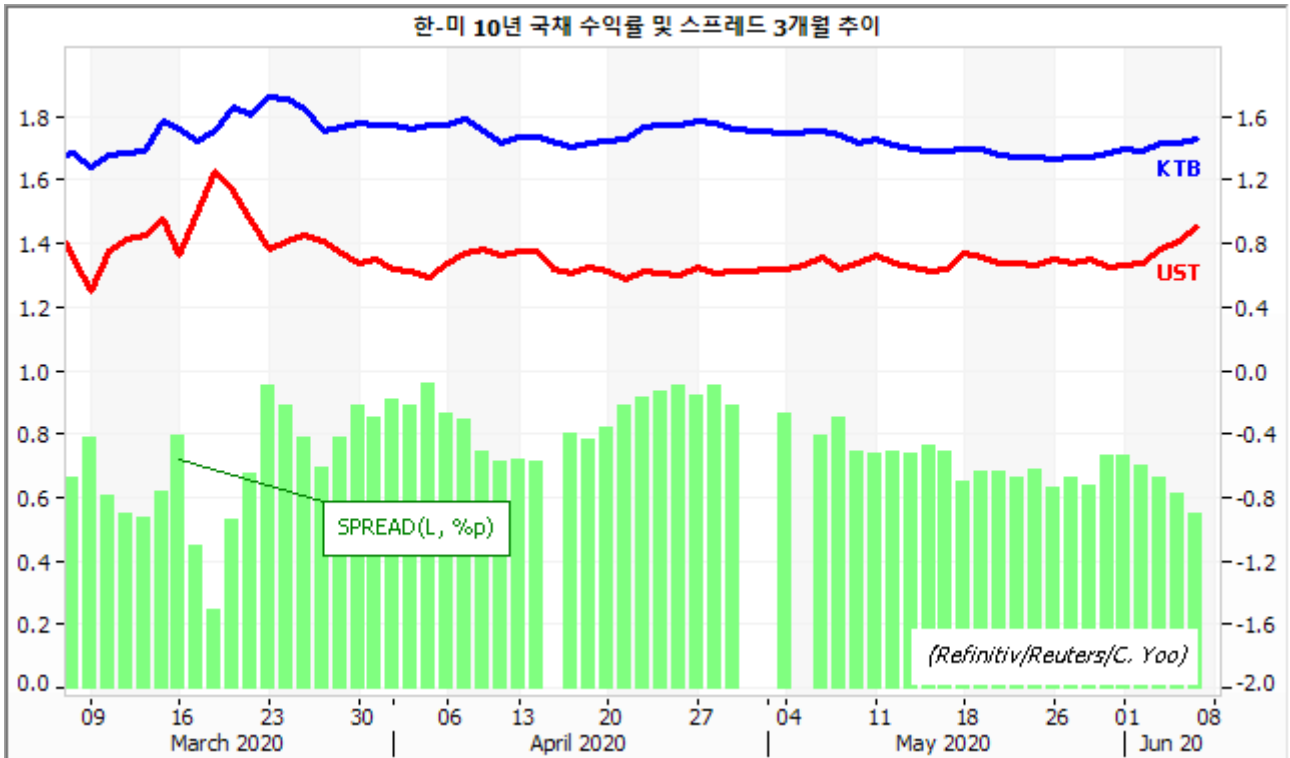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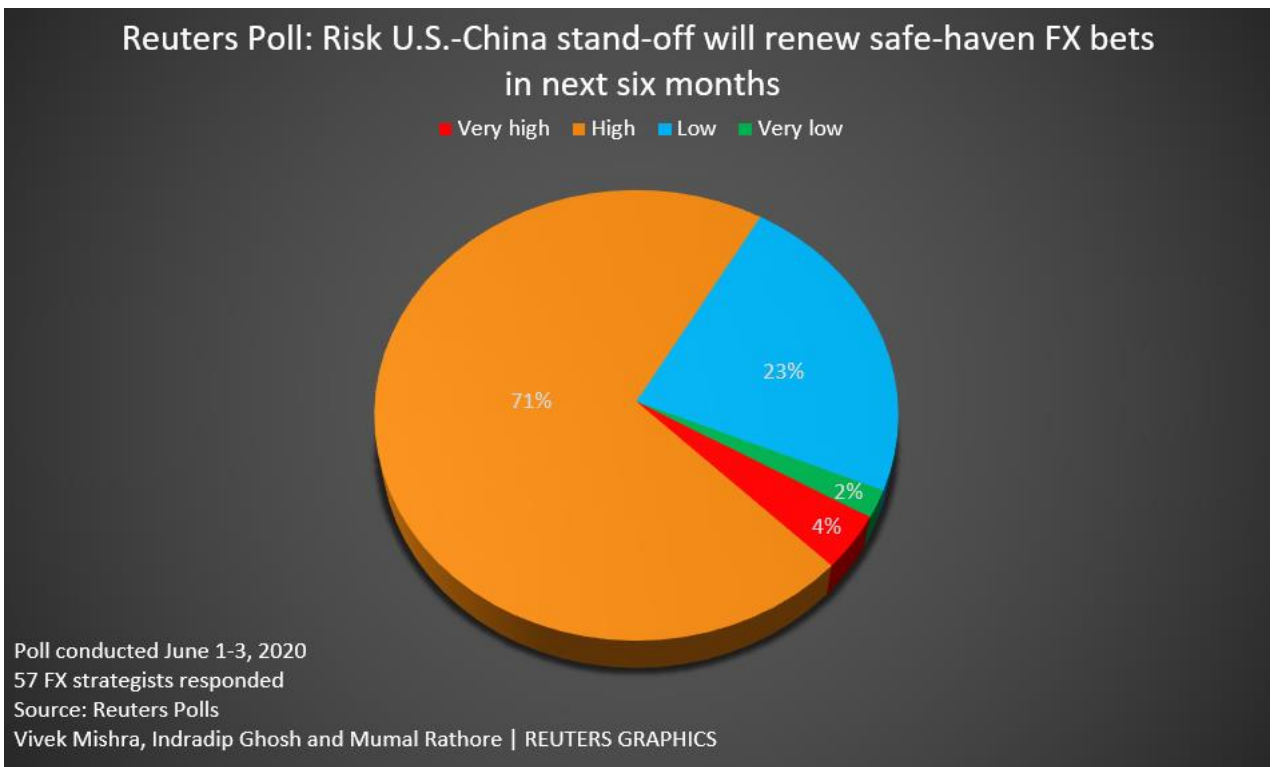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